



광명시 고등학생 총연합회

시국선언문

12-12-2024

광명시 고교 전·현임 학생회장 협의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로에서

우리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에서 비상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이는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선포된 계엄령으로,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한 위헌적 사건이다. 비록 계엄령은 3시간 만에 무력화되었으나, 그 충격은 현재의 사실상 무정부 상태와 함께 민주주의의 근본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두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하나, 헌법 제77조가 규정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은 그날 존재하였는가? 둘, 대통령은 왜 국회에 계엄군을 배치하여 의원들의 출입과 집회를 방해했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히 과거의 위법성을 묻는데 그치지 않는다. 2024년 오늘,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온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한 절박한 물음이다.

대통령 윤석열이 표방하던 ‘원칙주의자’와 ‘자유민주주의자’의 모습은 이제 퇴색하였다. 남아 있는 것은 ‘내란 수괴’라는 이름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뿐이다. 대한민국은 독재자의 사익을 위해 행정력이 동원되는 국가가 아니다. 그럼에도, 민주주의는 실수를 되돌릴 수 있는 체제다. 훌륭한 대표를 항상 뽑지 못할지라도,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고유한 강점이다. 하지만 12월 7일, 탄핵소추안 의결을 막기 위해 본분을 저버리고 본회의장을 떠난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며, 대한민국 민주정체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무너졌다. 국민의 부름이 국회 밖에서 울려 퍼졌으나,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제도적 권력 분산과 상호 견제를 몸소 거부한 그들을 보며 배신감을 느꼈다. 우리 청소년은 그들을 더 이상 국민의 대변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학생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역사는 증명한다. 4·19 혁명의 거리, 1987년의 뜨거운 여름, 그리고 오늘까지. 학생들은 순수한 정의를 믿고 자유를 위해 싸워왔다. 우리는 그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주의를 지키는 새로운 세대로서 행동할 것이다. 우리의 영혼에는 개인의 이익이나 양극화된 정쟁의 승리가 아닌, 정의와 자유라는 굳건한 기둥이 서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불법 계엄령의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와 자유가 뿌리내린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외친다.

하나, 계엄령을 포함한 민주 가치를 훼손하는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적 행위를 규탄한다.

둘, 대통령 윤석열의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라는 주장에 부응하기 위해, 그의 탄핵을 요구한다. 우리가 물려받아야 할 나라는 독재와 폭압이 아닌, 정의와 자유가 살아 있는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

셋, 국회의원들과 대한민국의 시민들께 진심으로 호소한다. 양당 진영 논리와 정쟁은 접어두고 함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리고 연대하자고.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서로를 목적으로 대하며 대화해야 한다.

우리는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나라를 꿈꾼다. 작지만 미래를 품은 청소년의 목소리가 다양한 색깔로 존중받고, 자유로운 사고와 정의로운 행동이 지지를 받는 사회에서 우리의 꿈이 실현되기를 염원한다. 민주주의의 주권자로서, 대통령이 가진 책임과 같은 무게의 자부심을 지닌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한다.

청소년의 겨울이 불게 물들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진실은 때로 은폐되거나 오랜 시간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깨어난다. 계엄과 억압의 시대에도 진실은 꺾이지 않았고, 20세기의 민주 항쟁과 선배들이 이룩한 공화정이 그것을 방증한다. 우리 615인의 광명시 청소년은 그 진실의 순간이 올 때까지, 대한민국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회복할 때까지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2024년 12월 12일

광명시 고등학생 총연합회 615인

광명시 고교 전·현임 학생회장 협의회 일동

시 국 선 언 문

-법치국가의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는 상황이라면 그 누가 헌법을 지키겠는가?-

2024년 12월 3일 약 22시 30분,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 발표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77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처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옳지 못한 판단으로 21세기 첫 비상계엄 국가가 되었습니다. 계엄 발표 후 23시에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게 되었으며, 국민들은 집회를 금지당하며 표현의 자유를 잃었습니다. 국민을 지킬 의무가 있는 국가는 포고령에서 국가를 따르지 않는 국민을 '처단'하겠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민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발표된 윤석열의 계엄령은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은 반헌법적 행위를 저지르고, 신뢰를 잃은 자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리를 윤석열은 개인의 사익을 위해 남용하였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윤석열은 철저히 이용하고, 국가와 국민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2024년 12월 7일, 여당의 다수 국회의원은 본인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회 본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회 밖에서 똑똑히 지켜보고, 소리 났음에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대변하여 국가에 의견을 전달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은 그들을 더 이상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과 여당의 다수 국회의원이 낳은 반민주주의적 행위의 결과는 결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지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그들이 국민의 짐을 늘리는 행위를 지켜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과 국민들은 이제 국회의원의 입이 아닌, 우리의 입으로 소리 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명백한 권리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명합니다.

“대한민국의 혼란을 야기한 윤석열은 퇴진하십시오. 당신은 우리에게 그저 내란 수괴일 뿐입니다.”

우리는, 청소년은, 국민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긴 역사 속에서, 국민이 승리하지 못한 적은 없습니다. 선조들의 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가 다시 피로 물들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경찰과 군인이 국회로 진입하는 것을 보았지만, 시민들이 국회를 지키는 것 또한 보았습니다.

군인이 시민에게 총구를 겨누는 것을 보았지만, 시민들이 총구 앞에서 물려서지 않는 것 또한 보았습니다.

윤석열이 계엄령을 발표하는 것을 보았지만, 국회의원들이 그를 막기 위해 담을 넘는 것 또한 보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무너트리려는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민주주의의 꽃을 보고 배웠습니다.

우리 청소년의 겨울이 불게 물들어지지 않도록,

하얀 눈에 그저 즐거워만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9일

광명시 고교 전·현임 학생회장 협의회

광문고등학교 전임 학생회장 송금주

위헌 상습범 윤석열을 즉시 처벌하라!!

우리는 2024년에 살고 있다. 우리는 과연 2024년에 살고 있나?

2022년 5월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된 이후 우리 사회는 몇 번이고 혼란을 겪고 견뎌야만 했다. 특히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은 위헌적인 대통령 권한의 남발로 인해 큰 혼란을 일으켰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헌법을 수호하고 이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하지만 한 나라의 대표이자 검사 출신인 사람이 이를 어기고 있다면 당신은 믿을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으로 정통 검사 출신으로서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동훈 검사가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고, 24명의 검찰 출신 인사가 선출·임명되는 등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침해하였다. 이렇게 검찰 조직을 행정부에 대거 종속시키며 헌법에 따른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 보호 의무에도 소홀하며 국민의 안전은 위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당시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눈길을 주는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를 주장하였으나 그 실상은 달랐다. 주 최대 근로 시간을 확대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과 건강권을 위협했으며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한 저소득층을 위한 재정자원을 축소하여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 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강골 검사’, ‘원칙주의자’, ‘외압에 굴하지 않고 원칙 있는 수사를 하는 검사’라고 불리던 검사 윤석열은 어디 가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며 그저 지켜볼 뿐인 대통령 윤석열만 남은 건가.

헌법을 유린한 내란죄 주범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에 동조하는 국민의 힘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고 해산해야 할 것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제를 시행하여 실제적 진실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

우리는 더는 이러한 참담한 현실을 묵과할 수 없으며,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이 참담한 현실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닫지 않을 것이다.

2024년 12월 9일
광명시 고교 전·현임 학생회장 협의회
광명고등학교 학생회장 유래현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학생들이 외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라는 충격적인 사태는 우리의 소중한 민주주의와 일상을 위협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권한을 부여하지만, 이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전제로 합니다. 현재의 상황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혼란과 불안을 초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피와 땀으로 얼룩진 역사를 걸어왔습니다. 4.19 혁명의 불꽃은 독재에 맞선 국민의 외침이었고, 5.18 민주화 운동은 국민의 존엄성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촛불 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단 한 순간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잊지 않았고, 그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학생으로서 또 다른 억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허울뿐인 교육 개혁은 학생들을 끝없는 입시 경쟁에 내몰며,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사고를 억압하고 우리의 미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학생인 우리의 삶에도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불공정한 제도를 바로잡는 것은 자유와 평등을 위한 투쟁의 연장선이자, 진정한 변화와 발전을 위한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부당한 계엄령과 입시 제도로 인해 억압받는 모든 학생과 국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역사를 잊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민주주의와 우리의 권리를 위해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을 위협하는 지도자는 더 이상 국민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권력도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4년 12월 9일

광명시 고교 전현임 학생회장 협의회

광휘고등학교 전임 학생회장 김휴경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 및 12·3 친위 군사 반란 동참자를 처벌하라!

우리는 지난 12월 3일 오후 10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아직도 살이 떨립니다.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12월 3일 그날, 대한민국은 우리 헌법 제77조에서 계엄령 선포 조건으로 언급한 어떠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 위험적인 대통령 권한 남용으로 인해 12월 4일 계엄이 해제된 이후로도 국민들은, 더 나아가 우리 학생들은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언제라도 계엄령이 다시 선포될 수 있음에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 경제 선진국,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자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노벨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소년이 온다』에서 그린, 군사 독재로 민주주의가 짓밟히던 1980년대에나 불법한 계엄령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소년이 온다』를 통해 계엄령이 다시 반복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사 시간에 현대사를 배우며 다시는 이 땅에 계엄령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약 3시간의 불법 계엄령 중 발포된 포고령으로 인해 우리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더 나아가 사상의 자유 역시 모두 일시적으로 통제당했습니다. 또 우리의 손으로 뽑은 22대 국회에는 위험적인 지시에 의해 출동한 계엄군이 난입하였고, 이 위험적인 지시를 내린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적 헌정을 무너트리려 했습니다. 70여 년간 민주주의를 위해 흘린 학생들의 피와 땀이 대통령의 단 한 마디로 부정당했던 그 순간을 우리는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계엄을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하였습니다. 과연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미래 세대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면, 어째서 교육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대학 입시를 혼란에 빠뜨리고, 어째서 연금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사회에 나아갈 청소년들의 허리를 휘도록 방치하였습니까? 더 나아가 어째서 미래 세대에게 ‘국회가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고, 위헌을 저지른 국무위원을 탄핵하는 것’에 대한 경고로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마냥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광명의 고등학생들은 12월 3일 위험적이고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당연히게도 위험적이고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를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부추기고, 협조한 범죄자들을 즉각 법치의 회초리를 받들도록 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헌법 제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익을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는 독재 국가가 아닌,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해 선출한 대통령이 국가원수로 신임받아 일시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렇기에 국가의 주인인 우리 광명의 고등학생들을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12·3 군사 쿠데타 동조자를 즉각 처벌하라!” 더 나아가, 우리는 책상 앞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멘트 바닥에 서서 시위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9일

광명시 고교 전·현임 학생회장 협의회
운산고등학교 전임 학생회장 이승환

고등학교 학생들이 민주주의 앞에 목 놓아 외친다.

2024년 12월 3일 10시 30분, 45년만의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현재까지 계엄령은 6번, 쿠데타이거나 국가 비상사태에 한에서만 선포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세력 적발'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일 3일 밤, 대한민국을 혼란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계엄령은 헌법 제77조에 의하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이거나 '병력으로써 군사상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할 수 있다' 라고 명시 되어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유들은 헌법 제 77조에 명시된 전시나 국가비상사태로 보기에는 무리한 사유이다.

또한, 계엄법 제2조 제5항에 의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이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대한민국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계엄군 사령부는 체포조를 만들고 국회 의장과 그리고 여야 당대표에 관한 체포를 시도했다. 이는 명백히 위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가치 중심 외교와 글로벌 중추 국가론은 반헌법적이고도 무책임한 비상계엄에 의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다. 당장 미국과 유럽의 반응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특히 동맹국 미국은 비상계엄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며,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할 수 있는 안보 협의도 잇달아 연기·보류되고 있다. 과연 국민의 뜻을 듣지 못하고, 국민을 대표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는 데 필요한가? 대통령 또한 수사 대상이며 대외적 외교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국가에서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고 익힐 수 있겠는가?

대통령은 왜 존재하는가?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대통령 아닌가? 윤석열의 지금까지의 행보는 국민을 위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대표와 리더라는 자리에 걸맞지 않는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다. 무능한 대통령은 존재하는 것 만으로도 국민을 힘겹게 한다.

인간 존엄과 민주 가치를 훼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를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수사받으며 국가 내부에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의 죄를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헌정 자유 민주주의 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외칠 것이다.

지금은 시위의 대가 끊긴 시대라고, 민주화는 오래 전 세대의 이야기라고들 말한다. 남에게 관심 없고, 본인만 생각하는 개인주의가 만연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우리는, 계엄령이 선포 된 후 하나 둘 시위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았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결국 그 넓은 국회 광장을 가득 채우는 광경을 보았다. 12월 9일 국회 앞에 모인 가지각색의 빛나는 깃발과 응원봉들을 보았다. 그 안에서 아직 죽지 않은 희망의 불씨를 보았으며, 꺼지지 않고 불타오르는 민주화의 의식을 보았다. 시위의 방식은 달라졌다해도, 그 속에서 불타오르는 민주화의 불씨와 연대의식이 건재함을 보았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부정의에 무릎꿇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역사를 잊어서는 안된다. 선대들의 불꽃이 이제는 우리에게 넘어오고 있다. 언제나 민주주의의 한가운데에서 타올랐던 것은 10대였으며, 10대이고, 10대일 것이다.

2024년 12월 9일

광명시 고교 전·현임 학생회장 협의회

소하고등학교 전·현임 학생회장단 일동

명문고등학교 제48대 학생회장단 시국 선언문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 비상계엄에 가담한 자들의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

내란범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 내란 범죄의 공범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지난 12월 3일 오후 11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법적으로 계엄령을 발동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위헌 행위이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거리에 나와 윤석열 퇴진을 함께 외치고 있다. 이번 12·3 사태가 일어난 후 국민들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2차 계엄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12·3사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정치적 자유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권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를 매우 떨어뜨렸고, 국민들 사이에서 심각한 불만과 반발을 일으키면서 계엄령 조치는 모든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에게 커다란 혼란과 좌절을 안겨주었다.

계엄령이 선포된 그날 국회에 쳐들어온 계엄군을 온몸으로 막으며 2시간 만에 해체를 의결하고 6시간 만에 종료된 모습을 우리들은 보았고 그 과정에서 계엄군은 시민을 향해 총구를 세울 것이 아닌 위헌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게 총구를 세워야 한다.

12월 7일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사퇴와 내란 행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국회 앞의 100만 명의 국민들은 한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을 외쳤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정족수 미달로 표결을 불성립시켜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겼다. 국민의힘 스스로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동조하면서 국민의힘이 아닌 내란의힘임을 인정하였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헌법과 국가의 기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 우리 학생들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권력 남용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으로 혼란한 국정을 하루라도 빨리 수습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은 오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퇴진이다.

우리 광명시의 고등학생들은 오랜 시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4·19 혁명 희생 정신과 5·18 민주화 운동의 희생을 잊지 않고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2016년 박근혜 탄핵처럼 해낼 수 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함께 서명에 동참하여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합시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방관하지 맙시다. 국민의 뜻인 대통령 탄핵을 함께 이뤄냅시다. 투쟁

2024년 12월 9일

광명시 고교 전현임 학생회장 협의회

명문고등학교 현임 학생회장 김민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로에서

우리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2024년의 우리가 익숙한 조문 속에 담긴 무게를 얼마나 깊이 느끼고 있는지 곱씹어보게 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정치 권력을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것은 단지 투표라는 절차에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 민주주의에 대한 모종의 책임과 의지를 요구하는 것인가?

민주주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자의 임의적 명령이 아닌, 헌법에 입각한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에 대한 존중이다. 윤석열씨가 선포한 12.3 계엄령은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이며, 어떤 법적 논리로도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계엄령은 단순히 지나가는 조치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근본인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국가폭력이다. 6시간만의 해제는 학생들의 분노를 잠재우기는커녕, 정의에 대한 갈망에 불을 지폈다.

교육 개혁을 표방한 정부의 초기 약속은 허울 좋은 구호에 불과했다. 교육적 가치와 정책은 충돌했고, 학생들은 과열된 입시경쟁의 구조 속에서 등급이라는 잣대에 매달려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들의 비명은 학원의 벽에 갇혀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언제까지 서열화로 점철된 수단적, 주입식 교육 환경에서 고통받아야 하는가?

역사는 말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심에는 언제나 학생들이 있었다고. 4.19혁명의 거리에서, 1987년의 뜨거운 여름 속에서, 학생들은 순수한 정의를 믿고 자유와 공정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그 정신은 지금도 살아 있다. 우리의 영혼에는 개인의 이익 추구나 양극화된 경쟁의 승리가 아닌, 공정과 정의라는 단단한 기둥이 서 있다.

계엄령이 선포된 그날 밤, 창문을 부수고 들이닥친 군인들과 몸으로 막아내는 시민들을 보며 우리는 비로소 느낄 수 있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쉽사리 얻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목소리를 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말이다.

우리는 민주공화국 주권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대통령이 된 것과 똑같은 무게의 자부심을 느끼는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염원한다. 중앙집권적 권력의 무게에 눌려 자유를 억압받는 사회가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세상에서 꿈을 펼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윤석열씨의 계엄령을 포함한 모든 반헌법적 행위에 우리는 단호히 저항한다.”

민주공화정의 구성원인 우리에게 주어진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충만하게 누리하고자 하는 우리의 울부짖음은 결코 그치지 않을 것이다.

진실은 은폐되거나 묻힌다 해도 결국 스스로 빛을 발한다. 계엄과 억압의 시대에도 진실은 꺾이지 않았고, 20세기의 민주 항쟁과 선배들이 이룩한 공화정이 그것을 방증한다. 진실은 때로 오랜 시간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깨어난다. 우리는 그 진실의 순간이 올 때까지, 대한민국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회복할 때까지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2024년 12월 9일

광명시 고교 전·현임 학생회장 협의회

충현고등학교 전임 학생회장 정해인